

생태계 오염 막는 지자체 특독행정

“아이스팩 모아오면 종량봉투 줍니다”

군산시, 내년부터 주민센터 수집

군산시는 무분별하게 버려져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미세플라스틱이 가득한 고흡수성 폴리머라는 화합물이다. 분해되는 데 500년 이상 걸리고 토양이나 하천으로 흘러가면 생태계 오염원이 된다. 플라스틱 충전제로 만든 아이스팩은 최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한 신선식품 배송시장이 확대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군산시는 내년부터 사용한 아이스팩을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10L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기로 했다.

모인 아이스팩은 세척업체에서 세척 및 소독 과정을 거쳐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 공급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왕군 군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아이스팩은 사용 후 일반 쓰레기와 섞여 배출돼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다”면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군산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사용 않는 방치된 농약 수거합니다”

익산시, 불용농약 처리 조례 제정

익산시는 농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약을 수거한다고 22일 밝혔다.

익산시는 오는 30일을 ‘불용농약 집중 수거의 날’로 지정하고 일선 읍면동과 협력해 집중 수거에 나선다.

익산시는 불용농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15개 읍면에 전용수거함을 비치했다.

이어 각 마을별로 불용농약 보관량 일제조사를 통해 불용농약 10t 정도를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불용농약 배출방법은 마을별로 쓰고 남은 농

약의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해 수집마대에 병류와 봉지류를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불용농약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된다.

그동안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 수거해왔으나 농가에서 쓰고 남은 각종 불용농약은 마을이나 농지주변에 수 년 동안 방치돼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져왔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예방과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온라인 장류축제’ 개막...29일까지 이벤트

순창군은 제15회 순창장류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막, 오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이벤트는 ▲장류 속 장류축제 추억사진 공모전 ▲우리집 장(醬)끼 자랑 ▲순창장류 특산물 및 맷돌 달기 ▲순창장류축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꾸민다.

이벤트 참가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역대 축제 사진을 게시한 후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20팀에는 ‘순창고추장 비빔밥 농산물 꾸러미’가 주어진다.

집에서 장을 담그는 사진이나 가정 내 장독대 사진과 함께 이에 얹힌 이야기를 순창장류축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10팀에 농산물꾸러미를 선물로 준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내년 장류축제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야간 불거리, 관광객이



함께하는 퍼포먼스 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면 대상(1명) 50만원, 우수상(1명) 30만원, 장려상(3명) 10만원을 준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축제 행사 취소로 아쉬움이 많은 분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이벤트 참여로 장류축제의 향수를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익산에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건립

145억 투입 2023년 준공...고성능 안전복·보호장갑 생산기술 개발

안전복과 보호장갑 등 민간의 안전보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시설이 건립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최근 익산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산업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고성능 안전복,

보호 장갑 등 개발을 지원하는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술지원센터는 이 사업의 하나로 산업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함께 145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건립한다.

안전보호 제품 세계시장 규모는 지난해 527억 달러에서 2025년 925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 기업이 생산하는 고품질 제품과 중국 기업 등이 생산하는 범용제품으로 양분돼있다.

한편, 아웃도어 전문 의류업체인 블랙야크는 이날 익산시, 전북도,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과 ‘안전복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 및 행정·기술적 지원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지난 19일 익산 ECO융합섬유연구원에서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지원센터’ 착공식을 했다.

〈전북도 제공〉

남원시, 50가구 미만 농촌마을까지 초고속 인터넷 구축

43억 들여 221개 마을에 내년까지 통신망 고도화 완료

남원시는 내년까지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까지 초고속인터넷이 가능한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50가구 미만 농촌마을과 귀촌마을 등 총 22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남원시는 정보화 이용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201개 농촌마을에 39억원 을 들여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 완료했다.

내년년까지 진행하는 초고속 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개 마을에 광케이블과 통신주 등 설비를 마을 입구까지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으로 소규모 농촌마을에도 초고속 광대

역 통합망이 구축돼 고품질 음성·영상통화, 고화질 IPTV 시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받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촌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공공와이파이 설치 등 정보통신 복지 실현을 위해 인프라 확대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50가구 미만 마을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8가구 모집

전용면적 26㎡...내년 3월 준공

정읍시는 연자동 일원에 건립 중인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편의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지하 1층·지상 11층, 전체면적 7821㎡ 규모로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공급된다.

현재 공정률은 83%를 넘겼고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입주는 4월 말 시작한다.

입주 신청은 다음달 1~31일 주소지 읍·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총 88가구 전용면적 26㎡로 공급된다.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이면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이 1순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자생위 계층은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50% 이하인 주민은 3순위다.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225만9000원에 월 임대료 4만4930원이다.



차상위 계층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181만8000원에 월 임대료 11만6380원이다.

전기·수도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는 별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의령玉氏 대동보(죽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뭄세

코로나-19에도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玉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죽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 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 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 갑자보(184년)
- ◆ 계해보(1863년)
- ◆ 정미보(1907년)
- ◆ 갑오보(1954년)
- ◆ 병진보(1976년)
- ◆ 기 묘 보(1999년)
- ◆ 학사공파(1935년)
- ◆ 평장사공파(2012년)
- ◆ 의령옥씨 1500년사
- ◆ 옥보고락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 연 락 처 : 051-504-8912 ◆ 팩 스 : 051-504-8913
- ◆ 편찬위원장: 옥 삼중, 옥 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 치 남 010-3550-8912